

## 미얀마 교회에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미얀마 중부의 현지 파트너 아웅\*의 파손된 집



###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서

4월 20일 주일, 수십억의 성도들이 부활절을 기념할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폐허와 공포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얀마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미얀마에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들은 피해를 입은 성도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홀로 버려져 잊혀진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되뇌이며 오늘도 다가갑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긴급히 요청됩니다.

이번 재해로 현재 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4,7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아직 잔해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구호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많은 국제기구들이 피해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무장 단체가 사가잉 지역 이재민 구호 물품을 강제로 압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대가 구호품을 전달하던 중국 호송대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이 와중에도 내전의 한 방편으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기독교인이 주로 거주하는 남부 친주와 사가잉 지역에서 군부의 폭격으로 최소 30명이 사망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현지 성도는 “사망자 중 기독교 목사와 노인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친주의 한 마을에는 교회와 여러 채의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절박한 상황과 아픔은 부활절의 기쁨과 어울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 부활절의 희망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우리의 방문에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들은 박해 받는 신자들을 돕기 위해 이미 현지에 있었습니다. 찾아 갈 만반의 준비를 갖췄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즉시 행동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인 민 나잉\*은 최근 배포를 마친 후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80가구에 쌀, 식수, 모기장 등을 지원했습니다. 태양광 램프가 도착하면 곧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현지 자원봉사자 아웅\* 형제와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매우 반가워했고 우리의 방문에 감사했습니다. 아웅은 교회 신자들의 복구 작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지진 이후 몸이 좋지 않아 태아의 건강을 염려하던 린\*과 남편 노아\* 목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과 기도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의사가 제 아이는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 끊임없는 필요, 그리고 지속적인 희망

지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데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밍 나잉\*은 "군이 구호를 방해하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모든 구호는 군을 거쳐야 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구호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던 신자들도 있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군에 의해 구호품 반입이 막힌 사례도 몇 건 있습니다."

현지 신자인 메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구호 기관은 주 정부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양곤에서 만달레이까지 모든 구호 차량이 심문을 받고, 붙잡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지 파트너들이 구호품을 전달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데 절대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미얀마 중부의 한 현지 교회를 방문한 조 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 붕괴로 인해 이웃집 지붕이 파손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와 목사님 가족은 이제 교회와 이웃의 재산을 복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기 위해 엔지니어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협력교회 아예\* 사모님도 방문했습니다. 교회가 낡고 지진으로 인해 균열이 생겨서 긴급히 대피하고, 신자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창고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아예 사모님은 "음식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끼니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업체와 직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생계가 걱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손된 도로는 구호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폭우로 인해 천막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질병이 더욱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역자들은 실질적이고 목회적인 지원을 통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번 부활주일에도 창고, 폐허 속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미얀마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눠주세요.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들의 보고처럼, 실질적인 지원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대지진으로 인한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살아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목사, 대표 신현필 목사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1-884970(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자명 뒤에 '미얀마' 세 글자를 함께 넣어 주세요.